

생명구조타올K2, 선택이 아닌 ‘필수품’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부터 지켜줄 ‘재난안전용품’
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기관에 비치해야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지난해 조례지정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생명구조타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티엔(대표이사 가금현)이 취급하고 있는 ‘생명구조타올K2’가 최상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세이빙스토리에서 제조하는 제품으로 화재발생시 연기·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재난안전용품으로 시티엔이 충남 총판을 맡고 있다.

특히 산소공급을 통해 골든타임 5분을 훨씬 뛰어넘는 20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도의회는 지난 연말 화재 또는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



스크(생명구조타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충남도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은 이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방연마스크 비치가 아닌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 생명구조타올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치

고 있다.

한편 시티엔 사업부에서 취급하는 생명구조타올K2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조달청 ‘혁신제품’ ▲특허청 ‘202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입상’ 제품으로 조달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가금현 대표이사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일반 배낭 메고 뛰어내리면 되겠냐고”고 반문하고 “현재 우리 주변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는 비행기 추락시 낙하산이어야 하는데 일반 배낭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고 시 있으나 마나한 제품”이라며 “이제는 화재사고 시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구조타올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도록 곳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모두 나서야 할 때”이며,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천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억만금을 들인다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서산시청 사격·카누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국 최강 입증

사격팀 6개, 카누팀 3개 총 9개 메달 획득

충남 서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해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서산시와 충청남도의 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떨쳤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청 카누팀은 14일부터 16일까지 전남 목포시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충남 선수단의 종합우승 20승과 전국체육대회 9연패를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14일 C-1 1000M에 출전한 최지성 선수는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15일 신동진, 나재영 선수는 C-2 1000M에 출전해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 서산시청 카누팀 기념촬영 모습(왼쪽부터 박민호 감독, 나재영, 신동진, 강신홍, 최지성)

강신홍 선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C-1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전국체육대회 2연패 달성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전국 최강자 자리를 굳혔다. 서산시청 사격팀은 14일부터 18일

까지 전남 나주시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사격경기에서 총 메달 6개를 획득했다.

14일 사격팀은 박성현 선수의 10m 공기권총 개인전 동메달 획득을 시작

으로 메달 사냥에 나섰다.

15일 소승섭, 최보람, 방재현 선수는 10m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16일 10m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이은서 선수도 금메달을 추가로 획득하며 이를 연속 금빛 소식을 전했다.

17일 50m소총3자세 개인전에서는 이은서 선수가 또 한 번의 금빛 총성을 쏘아 올리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18일 50m소총복사 개인전에 출전한 이은서 선수가 개인전 은메달을 추가하고 센터파이어권총에 출전한 소승섭 선수 또한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완섭 시장은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 사이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우리 선수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가금현 기자

태안군, 2030년까지 원북면에 ‘국화테마파크’ 조성

20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태안국화축제 개최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원북면 옥과 이중일 선생 생가지 일대가 오는 2030년 ‘국화테마파크’로 탈바꿈한다.

군은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군의원, 자문위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중일 선생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국화테마파크 조성은 이중일 선생 생가지 일원에서 열리는 태안국화축제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8기 가세로 군수 공약 중 하나다. 군은 디스퀘어(주)를 수행업체로 정하고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국화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군은 이중일 선생 생가지 주변 42만 8877㎡ 부지에서 ‘옥과, 꽃, 물의 만남. 옥과휴양 힐링 공원’을 목표로 특화 콘텐츠를 담은 주제 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화테마파크에 활짝 핀 꽃들을 연상시키는 이름인 ‘블루밍원(BloomingOne)’ 브랜드를 만들고 ‘옥과’와 ‘국화’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필 기자

전남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행안부 장관상

수요자 중심 신규 데이터 발굴 등 노력...자치단체 향상도 1위

전라남도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 및 발전 심포지엄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자치단체 향상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실과소 전주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전 년 대비 점수가 대폭 올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정책을 개선하고자 개방, 활용, 품질 등 총 5개 영역, 16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70개 기관이다. 그 중 전남도는 신속한 공공데이터 제공, 대국민 소통 및 수요자 의견수렴 등 총 8개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현재 411종(장애인 복지 시설 정보, 응급의료기관 현황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누리집(www.data.go.kr)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상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발굴·개방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매 기자

세종시,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민관 힘모은다

17일 세종시·남부발전·중부발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손을 잡고 에너지 취약·소외계층의 주거환경 지원에 나선다.

시는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장,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의 가용한 자원을 이용하여 취약(소외)계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은 에너지 취약·소의 계층을 위한 ▲안전한 에너지 시설(냉난방)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기타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취약계층의 연탄·등유 보일러를 가스(LPG)보일러로 전환을 지원하고, 보일러 노후로 인한 이음 부위 유해가스 누출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를 추진하는 등 약 8,000만 원 상당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정민준 기자

천안시, ‘2023 천안 미래모빌리티 포럼’ 개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천안지역 미래모빌리티 전환 방안 구상

천안시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8일 ‘2023 천안 미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5년간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천안지역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중심 연구회와 기술 교류회, 포럼 등을 개최해 천안 특화형 전과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지난 7월 미래모빌리티 국가산 단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제1차 도시 인프라 중심의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기화하는 이번 포럼은 미래모빌리티를 정의하고 스마트 도시 디자인을 구상해,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확장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공주대학교 김문식 교수의 ‘우리 일상을 바꿀 미래모빌리티’, 건국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의 ‘스마트모

빌리티와 미래도시’ 발제가 진행됐다. 패넌로는 김정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팀장, 이기영 한국도로공사 연구위원, 이정철 케이지(KG) 모빌리티 수석연구원, 최훈규 천안시 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초기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을 위해 신도시 계획 및 도시 재개발 계획 단계에서 버티포트의 개념 반영과 지상 모빌리티와의 연계 측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은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미래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유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로 디지털화를 통해 미래모빌리티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천안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서해안 벨트와 연계로 미래모빌리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천안시 미래모빌리티 포럼은 1차 미래모빌리티 발전방향(10/18)을 시작으로, 2차 미래모빌리티 정책동향 및 이슈(11/1), 3차 미래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이해(11/22)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매정 기자



옥천군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날

제6회 옥천군민의 날

옥천군은 14일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옥천군민의 날’을 성황리에 마쳤다.

옥천군 지명 탄생일(태종 13년, 1413년 10월 15일)을 기념하고 군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10월 1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부에서는 주민 참여 공연과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북돋웠다. 2부는 행복의 조건을 주제로 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강사의 강연으로 채워졌다.

/이규국 기자